

“관세음보살 자비로 독도 수호”

천태종, 울릉도 해도사서 해수관음상 봉불식

일본정부가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져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독도가 바라다 보이는 울릉도에 동해와 한반도 수호의 염원이 깃든 해수관음상이 우뚝 섰다.

천태종 울릉도 해도사주지 비룡은 5월 21일 해도사 관음전 앞마당에서 ‘해수관음 봉불 및 범종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봉안된 해수관음상은 11m 높이로 조성됐으며, 해수관음상을 중심으로 앞뒤 20m, 좌우로 13m 공간을 다양한 연꽃모양 조각으로 장엄했다.

이날 천태종 종정 도음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마음은 언덕이 온갖 지혜로서 조수가 되어 움직이니, 증상은 측량 못하고 말로도 다할 수 없다”며 “온갖 부처님 세계를 모두 다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도 한 티끌에 있는 세계를 말할 수 없으니, 온갖 티끌 다 그러하다”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울릉도는 외로운 섬이 가지는



5월 21일 봉불식을 가진 해도사 해수관음상. <사진=순법천 대구지사장>

자연조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큰 곳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절실한 곳”이라며 “해도사는 그동안 신도와 지역 주민들의 귀의처가 돼 기쁨, 슬픔, 고난을 함께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이어 “불보살님을 새로 모

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번뇌를 떨어내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용맹정진하면 이곳 울릉도가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 보타나가가 돼 오늘 동참자를 비롯해 울릉도 주민, 바다의 일체 존재들에게도 자비광명이 퍼져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도사 주지 비룡 스님은 개식사에서 “이번 해수관음상 봉불로 동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울릉도에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없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관세음보살 독종으로 용맹정진하면 독도를 비롯해 울릉도와 한반도를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각종 여래심인당 지우 정사와 정운열 울릉군수(김광호 부군수 대목), 신봉석 군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울릉도 해수관음 봉안을 찬탄했다.

봉불식에 앞서 해도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음 종정 예하를 증명대법주,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을 증명법주로 해수관음상 점안식을 봉행했으며, 이어 범종각 낙성식도 거행했다. 해도사는 이날 법회 후 독도 인근 해역으로 자리를 옮겨 바다에서 순직, 참사자를 비롯해 울릉도 주민, 바다의 일체 존재들에게도 자비광명이 퍼져나

김성우 기자

“나를 낮추는 下心 배워요”

국회의원 4인 등 서강대 TCPS 수강생들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5월 16-17일 마곡사에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가진 서강대 TCPS 수강생들.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회의전문가 과정(원장 남성일, 이하 서강대 TCPS 과정) 1기 수강생들이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5월 16일 오후 5시 마곡사에 모인 서강대 TCPS 과정 수강생들의 템플스테이는 ‘하심(下心)’을 주제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런데 왜 하심을 주제로 정했을까. 이유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한나라당 신지호·나성린·배은희·강성천 국회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광은 부총장 등

소위 Hi-class이기 때문이다. 서강대 TCPS 남성일 원장은 “우리 수강생들 모두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마가 스님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A4용지에 ‘내 하나뿐인 000년의 긍정 명상’이라는 제목을 쓴 뒤 000년,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 고마운 점, 예쁜 점, 멋진 점 등을 적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전화를 통해 읽어주는 것. 내일 하게 되면 늦는다. 이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

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하심하기에 맞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3배를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삼배에 앞서 절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고통을 피하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등의 문구를 되뇌이게 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일러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

3배를 받은 나성린 의원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에게 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죄송스럽고 영광스럽기까지 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렇게 절을 받는 것보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 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하는 것이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함한 세상 다뤄줘’라는 장님 체험을 통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을 일깨워주고, ‘108배’는 108가지의 경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순효선 기자

각원사 대원 스님 교정대상 자비賞



천안 개방 교도소 종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 스님(각원사 부주지·사진)이 지난 5월 14일 제 26회 교정 대상 분상인 ‘자비賞’을 수상했다. 대원 스님은 1990년 교정 참여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약 21년 10개월간 종교 집회와 정

신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스님은 교도소 교화 공인 및 체육 행사, 명절 등 행사 때 마다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 격려하는 교정대상은 법무부의 후원으로 서울신문사와 한국 방송공사(KBS)가 주최해 진행됐다. 순효선 기자

서산 마애삼존불상 보수 나서

연내 균열 복구작업 완료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의 심한 균열로 문화재청(청장 이근무)과 충남 서산시(시장 유상관)가 보수에 나섰다.

5월 19일, 서산시는 “2007년 말부터 국보 제84호 마애삼존불상의 세척 및 보존처리 공사를 하던 중 불상의 머리와 우측 상부 등에서 다수의 균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상의 균열은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

라 오랜 세월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라며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존처리를 위해 금년 중 마애삼존불상 주변 균열부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 말기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마애삼존불상은 1974년 자연풍화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호각을 설치됐고, 백제의 미소를 볼 수 없다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 보호각이 완전히 제거됐다. 조동섭 기자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

‘2008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가 5월 23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원법회에는 도·불협의회장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설곡 스님(수도원), 현진스님(민음사), 혜전 스님(성문사)을 비롯해 정우택 도지사, 부시장·부군수, 도청 실·국장장, 시행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현 스님은 “중국어 미얀마의 엄청난 자연재난과 미국 수입소 파동, 경제난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선업을 행하고 안심을 얻어 모든 도민들이 자유와 행복, 건강을 누리며 함께 잘 사는 정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정우택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슬로리건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



5월 23일 봉행된 충북 도정발전 기원법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우택 도지사.

민 운동에 앞으로도 불교계와 도정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순효선 기자

각원사 제2회 효도잔치 봉행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은 5월 22일 독거노인 등 어르신 500명을 초청, ‘제2회 효도잔치’를 봉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효도잔치는 평소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지 법인 스님과 각원사 불교대학 학

장 대원 스님의 뜻을 잇고자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불자회가 마련한 것. 이날 불교대학총동문회 이영석 회장은 “효도잔치를 열수 있었던 것은 소외되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효선 기자

조인선원 60년만에 재개원

1930년대 중반 수좌들의 수행도량이었던 조인선원이 60여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웅선가 하안거 결계를 맞아 5월 18일 조인선원

을 개원했다. 이번 하안거 결계에는 선원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구암 스님이 용상방에 법명을 올렸다. 조인선원은 지난 1937년 하안거와 동안거 결계에 만공 스님이 조실로 납자들을 지도한 곳이다. 순효선 기자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증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증 구비서류

- 본종 입증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 창원총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자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